

국내기업의 해외진출현황과 진출기업의 국내복귀가능성

2017. 6. 14.

문 종 철 (산업연구원)

목 차

1. 제조업 복귀 정책 추진 배경과 주요국 기업복귀사례 요약
2. 제조업 해외투자 현황분석
3. 해외진출 기업의 복귀 가능성
4. 국내 복귀기업 지원방안
5. 통상환경 변화와 기업복귀에 미칠 영향
6. 복귀기업 유치전략 수립을 위해 고려할 요소

1. 제조업 복귀 정책 추진 배경과 주요국 기업복귀 사례 요약

(1) 제조업 복귀 정책 추진의 배경

❖ 제조업 기업 복귀 정책의 목표

- 국내업체의 재유치를 통한 외국인 투자의 부족 보완
 - 국내 제조업 역량 강화
 - 고용창출
- ➔ 국내경제의 활성화와 성장동력 확보

1. 제조업 복귀 정책 추진 배경과 주요국 기업복귀사례 요약

(1) 제조업 복귀 정책 추진의 배경

❖ 제조업 복귀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 된 것은 2010년 전후

- 이 무렵 GM과 GE 등 미국 유수의 대기업이 중국 투자계획을 대신하여 미국 국내에 신규 생산시설을 건설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관심을 일으킴
- 이어서 제조업 각 분야에서 이름이 알려진 미국 유수의 기업들의 그동안 중국에서 이루어져 왔던 생산라인을 다시 미국으로 옮겨오면서 글로벌 경제의 확산과 더불어 산업 공동화가 발생하고 침체를 거듭하던 미국 내 제조업의 활성화라는 과제를 해결할 도구로서 해외진출 기업의 복귀가 주목을 받음
-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당시 재선 운동 중이던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재선 공약으로서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재유치를 포함시키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일자리 되찾아오기 법안(Bring Jobs Home Act)”을 발의하는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치적 움직임의 일환으로서 복귀를 활용

1. 제조업 복귀 정책 추진 배경과 주요국 기업복귀 사례 요약

(1) 제조업 복귀 정책 추진의 배경

❖ 기업 복귀 정책의 제도화

- 이름이 알려진 선진국 대규모 다국적 기업의 국내투자 재개는 자국 제조업 생산 증대와 고용창출이라는 목표달성에 가시적으로 기여
 - ☞ 해외진출 기업 재유치를 성공적으로 추진만 하면 국내 경제 문제의 일각을 해결할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수단으로 인식
-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에 따른 산업공동화와 제조업 침체를 해결할 유용한 도구의 하나로서 복귀에 관심을 가짐
 - ➔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유도하기 위하여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제도화

1. 제조업 복귀 정책 추진 배경과 주요국 기업복귀 사례 요약

(1) 제조업 복귀 정책 추진의 배경

❖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유턴기업지원법)” 제정

- 국내에서도 해외로 진출한 국내기업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명 유턴기업지원법을 제정하여 2013년 12월부터 시행
 - 유턴기업지원법은 기존의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기초로 법률이 제정되어 법률의 구조나 인센티브의 내용이 외국인투자지원법과 흡사
- ➔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복귀 의사가 있는 해외진출 국내기업의 차이가 반영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요소가 있으며 수정·보완의 여지가 있음

1. 제조업 복귀 정책 추진 배경과 주요국 기업복귀사례 요약

(2) 주요국 기업복귀 사례

1) 미국의 사례

- ❖ 미국은 2011년 경부터 중국의 생산라인을 미국으로 이전하거나 신규투자를 중국 등이 아닌 미국 국내로 돌리는 방법으로 복귀현상이 본격화되고 있음
- ❖ 미국 기업의 복귀는 **현지의 인건비 상승**뿐만 아니라 **에너지가격 하락, 물류비, 소비자 수요의 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의 필요성** 등 결정요소가 다양함

: 이는 에너지 생산국이자 자체로서 대규모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현지 인건비 상승이 복귀의 주된 이유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와는 차이가 있음**

- ❖ 미국 기업 복귀의 특징은 정부차원의 지원 정책보다는 기업들의 내부경영사정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점과 기업의 복귀를 유치하기 위하여 각 주정부 및 지자체가 해당 기업에 맞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점
 - ❖ 오바마 정부는 재선 캠페인에서 기업의 복귀 지원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2015년까지 정책으로 구체화되어 실행에 옮겨지고 있는 내용은 없음
- ➔ **오히려 오바마의 후임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가 강력한 복귀 드라이브를 걸면서 기업들을 압박**

1. 제조업 복귀 정책 추진 배경과 주요국 기업복귀사례 요약

(2) 주요국 기업복귀 사례

1) 미국의 사례

Fo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에 중국투자 대신 캔자스시티의 조립공장 설비 현대화를 위한 4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 • 캔자스시티 공장의 현대화 및 3,750명의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미주리주 의회에서 포드에의 조세 인센티브 패키지를 승인 • 2013년에는 캔자스 공장에 2,000명의 추가 신규 고용 계획을 발표
G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에서 2017년 기간 동안 미국 내 생산 라인에 54억 달러 투자 계획 발표 • 미시건의 3개 공장에 7억 8,350만 달러를 우선적으로 투자
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10월 고효율 온수기 생산부문을 중국으로부터 이전 • 중국 생산기지를 철수시키고 미국 내 4개 공장에 4년간 4억 3,200만 달러를 투자해 생산 재개 • 2011년 켄터키주 루이빌에 4,800만 달러를 투자하여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을 발표
Global Foundr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년 뉴욕주 말타에 최신 실리콘 웨이퍼 공장 설립을 조건으로 뉴욕주로부터 공장 설립에 드는 비용 중 14억 달러를 청구비용 보전의 형식으로 지급받음
Caterpilla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텍사스주 빅토리아에 유압식 굴삭기 제조공장 설립 발표 • 공장설립으로 500명 이상의 노동자 신규 고용 계획 • 유압식 굴삭기의 미국 내 생산규모 세 배로 증가 예상
Wham-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멕시코 공장 생산량의 약 50% 가량을 미국 생산으로 전환
NC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주력제품인 ATM 기기의 생산을 중국, 인도, 헝가리 등에서 조지아주 공장으로 복귀 • NCR의 복귀를 위하여 조지아주는 조세감면 혜택과 1500만 달러 상당의 고용 및 R&D 보조금, 고용된 인력에 지불되는 임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등을 제공
Whirlpo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중국 광동성 생산라인을 오하이오주 그린빌로 이전 결정 • 오하이오주에서는 이전 후 5년간 신규로 추가 지급되는 임금비용에 대해서 45%의 세금공제 혜택 제공 • 2014년 400개 일자리 추가 발표
Otis Elevato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 멕시코 생산라인을 사우스캐롤라이나로 이전 • 이전과 동시에 4000만 달러의 신규 투자와 360개 일자리 창출 • 공장소재지인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플로렌스 카운티는 이전 후 30년 간 Otis 공장 건물의 재산세 감면, 신규고용 인력에 대하여 2016년까지 400명한도 내에서 최대 3년간 1인당 1000달러의 고용보조금 지급 등의 혜택을 제공
Master Lo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아시아에서 밀워키로 공장을 이전 • 이전과 더불어 밀워키 공장에 100개 신규 일자리 창출
Colem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플라스틱 아이스박스 공장을 중국에서 캔자스주 위치타로 이전
Sleek Audi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초에 첨단 헤드폰 생산시설을 중국에서 플로리다주로 이전

1. 제조업 복귀 정책 추진 배경과 주요국 기업복귀사례 요약

(3) 주요국 기업복귀 사례

2) 일본의 사례

- ❖ 일본기업의 복귀는 **아베노믹스로 인한 환율상승**과 현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증가, 일본 국내 생산의 비용 감소가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 일본의 경우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 수준에서 기업의 복귀를 추진하는 명시적인 정책은 없고 **국내투자 촉진 정책이 기업 복귀 정책을 대신**하고 있음
- ❖ 기업의 복귀에 따른 인센티브는 복귀기업을 유치하는 각 지자체 소관
 - 장점 - 기업의 사정에 맞춰 유연하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음
 - 단점 - 지원의 폭이 지자체의 재정능력 범위를 넘지 못함

1. 제조업 복귀 정책 추진 배경과 주요국 기업복귀사례 요약

(2) 주요국 기업복귀 사례

2) 일본의 사례

샤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1,000억엔을 투자하여 미에현 가메야마시에 액정패널, 액정 TV 등을 일괄 생산할 수 있는 대형공장 준공 (2003) • 가메야마 공장과 관련 40개사의 고용 약 7,200명 증가
캐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생산 거점을 중국 등 아시아 각지에서 일본으로 이관 (2003) • 오이타에 디지털 카메라 신공장 건설 등 2004~2006년간의 설비투자 • 7,800억엔 중 80%를 일본 내에 투자 • 2013년 42%에 머무르고 있는 국내생산비율을 2015년까지 50% 이상으로 올릴 방침 (닛케이신문, 2014.1.9)
파나소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세로형 세탁기를 시즈오카현 후쿠로이시(袋井市)로, 가정용 전자레인지는 효고현 고베시(神戸市)로, 가정용 에어컨은 시가현 구사쓰시(草津市)로 이전할 계획을 검토 중 (글로벌이코노믹, 2015.1.8)
다이킨공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용 에어컨 25만대 생산 공장을 중국에서 일본 시가현(滋賀県)으로 이전 (Wall Street Journal, 2015.1.19.)
소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에서 생산하던 대미 수출용 비디오카메라를 2002년 이후 일본 전량 생산으로 전환 • 해외수출 제품의 부품 40% 이상을 국내 조달, 일본 내 생산 결정
켄우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레이시아 생산거점을 일본으로 이동 (2003) • 높은 생산성(5배)으로 임금격차 극복: 인건비 비율이 제조원가의 2~3%에 불과
온워드 카시야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등의 니트 의류 생산거점을 일본으로 전환 (2004)
마쓰시타 전기공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생산기지를 일본 본국 생산으로 이전 (2004) • 이바라키에 PDP TV 및 업무용 PDP 공장 건설 및 우오즈에 DVD 레코더용 LSI 공장 건설
혼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20만대의 완성차 공장을 사이타마현(埼玉県)에 건립 (2010)

1. 제조업 복귀 정책 추진 배경과 주요국 기업복귀사례 요약

(3) 주요국 복귀정책 사례

1) 대만의 사례: 대만 경제인의 대만복귀투자 장려방안 운영

❖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

- 대만은 한국과 비슷하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복귀 기업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복귀기업 유치를 위하여 중앙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소수 사례 중 하나

❖ 특징

- 양안 경제협력 기본협정의 영향을 받는 중국 진출 업체보다는 그 외의 지역에 진출한 대만 기업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음
- 기업의 현지청산 혹은 현지생산 축소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한국의 복귀기업지원법과는 달리 기업들의 질적 요소를 강조

1. 제조업 복귀 정책 추진 배경과 주요국 기업복귀사례 요약

(3) 주요국 복귀정책 사례

1) 대만의 사례: 대만 경제인의 대만복귀투자 장려방안 운영

항 목	내 용	
실시기간	2012년 1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적용조건	<p>방안 실시기간 동안 투자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받았고 3년 안에 투자를 완료할 수 있으며 다음의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p> <p>I. 적용대상 중국 이외 지역 및 국가에 투자한지 2년 이상 되었으며 다음의 형태 중 하나와 부합하는 기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기 브랜드가 있으며 국제적으로 판매 하고 있음 2. 국제 공급사슬 중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기업 3. 고부가가치 상품 혹은 핵심 부품 관련 산업 4. 대만 자본의 글로벌 기업이며 대만에 R&D센터 혹은 경영본부가 있음 <p>II. 투자금액</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첨단과학산업: 5억 대만달러 이상 2. 기타산업: 1억 대만달러 이상 <p>III. 취업자 투자 완료 이후 1년 안에 본국인 취업자가 100명 이어야 함</p>	
6대정책	인력문제 해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인 노동자 비율 제한선에서 15% 혹은 20%를 추가하여 최고 40%까지 높이고 5년 동안 취업안정비를 감면. 2. 취업교육 능력을 강화하고 산업 기술인력을 양성하며 국제화된 우수한 소프트웨어 인재를 배출
	토지정보획득협력	행정원과 각 지방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산업용지 자문 서비스를 통합하여 산업용지 수급 자문 통합 플랫폼을 건설
	장비수입 협력	제조상의 장비 수입 수요를 조사하여 국내에서 생산중인 장비의 수입 관세를 조정
	교육서비스강화	대만 복귀 투자자들을 위한 단일 서비스 창구를 만들어 대만 경제인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각종 우대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는 일을 도움
	양안 경제협력 기본협정(ECFA) 후속 협상의 조속한 마무리	대만으로 복귀 투자하는 대만 경제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ECFA의 후속 협상 중점 내용에 포함
	전용대출	대만 경제인에게 투자 계획 금액의 최고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지원하고 이자는 우정 저금 2년 만기 정기예금의 고시금리에서 연금리 1% 포인트 추가

1. 제조업 복귀 정책 추진 배경과 주요국 기업복귀사례 요약

(3) 주요국 복귀정책 사례

2) 영국의 사례: Reshore UK 프로그램

❖ Reshore UK 프로그램 개요

- 영국에서는 2011년 이후 1,500개 이상의 일자리가 국내로 복귀하는 등 기업들의 복귀 현상에 고무되어 적극적으로 해외진출 영국기업의 복귀를 추진
- 2014년 초에 무역투자부(UK Trade & Investment)와 기업성장지원부 (Manufacturing Growth Service) 산하 제조업자문지원과(Manufacturing Advisory Service)의 주도로 기업의 복귀 지원을 담당할 one-stop shop 으로서 Reshore UK Program을 발족시키고 이를 통하여 해외로 진출한 영국기업의 국내 복귀를 추진하려 하고 있음
- 해외에서 활동하면서 영국 경제에 기여하는 모든 영국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50인 이하 고용 중소기업체는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경영개선 프로젝트와 더불어 재정적인 지원도 신청 가능

1. 제조업 복귀 정책 추진 배경과 주요국 기업복귀사례 요약

(3) 주요국 복귀정책 사례

2) 영국의 사례: Reshore UK 프로그램

❖ Reshore UK의 지원정책

- 복귀와 관련된 기술적·전략적 자문
- 중소기업
 - 대상 기업의 시장에서의 경쟁역량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복귀 전략 수립 지원
 - 복귀에 의해서 발생하는 공급사슬(supply chain) 참여 기회 모색
 - 품질, 비용 및 물류 개선을 위한 맞춤형 실천방안 및 지원패키지 제공
 - 복귀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급사슬 참여의 지속적인 성공을 위한 부단한 지원
- 대기업 및 기타
 - 국내 공급 사슬의 질적 요소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당 기업의 주문을 소화해낼 역량이 있는 중소기업 알선
 - 국내로 복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 지원

1. 제조업 복귀 정책 추진 배경과 주요국 기업복귀사례 요약

(3) 주요국 복귀정책 사례

2) 영국의 사례: Reshore UK 프로그램

❖ Reshore UK 발족을 전후로 영국 국내로 복귀한 주요 기업

회사명	업종	해외진출지역	복귀지역
Element 14 (Raspberry Pi)	전자 부품	중국	Pancoed, South Wales
Laxtons	섬유(모직)	중국	Guiseley, West Yorkshire
Paper Cup Company	종이컵 제조	중국	Clitheroe
Caldeira	봉제	중국	Knowsley Business Park, Liverpool
RDM Group	자동차 부품	중국	Coventry
Rotigrill	식당 설비	중국	High Wycombe, Buckinghamshire
Bathrooms.com	욕실 용품	중국	Birmingham
New Call Telecom	정보통신(콜센터)	인도	Burnley, Lancashire
Santander	은행(콜센터)	인도	Glasgow, Leicester and Liverpool.
RSA	보험(콜센터)	인도	Sunderland
Aston Martin	완성차		Midlands
Jaeger	의류		London
Vent-Axia	공조 시스템	중국	Crawley

1. 제조업 복귀 정책 추진 배경과 주요국 기업복귀사례 요약

(3) 주요국 복귀정책 사례

2) 영국의 사례: Reshore UK 프로그램

- ❖ Reshore UK 발족을 전후로 영국 국내로 복귀한 주요 기업들이 밝힌 복귀의 이유
 - 현지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 문제**
 - 현지에서의 적절한 **공급망(Supply Chain) 구축의 어려움**
 - 중국 등 해외진출 현지와의 **물리적 거리**가 인건비에 의한 비용절감효과를 상쇄
 - 물리적 거리에 의한 **국내 및 해외 수요 대응에 시간이 소요**

1. 제조업 복귀 정책 추진 배경과 주요국 기업복귀사례 요약

(3) 주요국 복귀정책 사례

2) 영국의 사례: Reshore UK 프로그램

❖ 영국 사례의 시사점

- 정부부문은 재정지원 등 눈에 보이는 지원은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복귀와 관련해서는 복귀 후의 기업별 맞춤형 실천 전략 마련 및 복귀 기업과 국내 공급사슬의 연계에 주력하는 것이 특징
- 복귀 기업에 대해서 국내 복귀 후 지속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도록 **기업별로 체계적인 맞춤형 실천 방안을 마련**해주고 **국내 공급사슬과의 연결을 지원**하는 것과 국내 인력의 기술력 향상이 중요함을 시사

1. 제조업 복귀 정책 추진 배경과 주요국 기업복귀사례 요약

(4) 주요국 기업복귀 사례의 시사점

1) 미국과 일본의 사례는 기업복귀 정책에서 참고가 되기 어려움

❖ 미국과 일본의 사례는 각 국의 특수성이 강하게 반영

- 미국의 사례는 거대한 내수시장과 중국 등과의 지리적 거리, 일본의 사례는 내수시장의 규모와 통화정책에 의한 환율 상승의 부산물이라는 특성이 강하게 반영

→ 우리나라에 이러한 특수성을 적용하기는 어려움

- 미국과 일본의 경우 일반적인 기업투자 촉진정책과 기업복귀 정책이 구분되지 않음

→ 우리나라에 미, 일의 사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 지역간 형평성, 국내기업과 해외진출 기업 간의 형평성 문제 등을 극복해야 하는데 그러한 요소를 모두 안고 가면서 미, 일과 같은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움

1. 제조업 복귀 정책 추진 배경과 주요국 기업복귀사례 요약

(4) 주요국 기업복귀 사례의 시사점

2) 대만과 영국의 사례는 정책입안이라는 측면에서는 참고가 될만하나 정책의 효과가 증명되지 않음

- ❖ 대만의 경우에는 양안 관계의 특수성 등이 작용할 수 있음
 - 개별 기업들의 일부 복귀 사례는 보고되고 있으나 정책추진의 성과인지는 불분명하고 정책의 성공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움
- ❖ 영국은 정책의 성과에 대해서 보고가 되어있지 않음
 - 여기에 기업들의 복귀문제에 영향을 줄 외부적 요인(브렉시트) 때문에 앞으로도 기업복귀 정책 자체의 성과를 평가하기 쉽지 않음

2. 제조업 해외투자의 현황분석

(1) 어떤 업종이 어느 정도 규모로 진출해 있는가?

❖ 해외진출을 업종별로 파악해야 하는 이유

- 업종이 제조업 국내복귀 가능성 및 국내 복귀 후의 파급효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

❖ 화학산업이나 1차금속 제조업 등은 제조업 전체의 해외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이나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이라는 특성상 국내복귀의 경우 설비의 이전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내복귀의 비용이 큼

- 이러한 업종은 국내와 해외에 생산기지를 동시에 두고 상황에 따라 양쪽의 생산시설을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미 해외로 진출한 기업 및 설비의 국내복귀 가능성이 낮음
- 또한 자본집약적 산업의 특성 상 국내로 복귀하더라도 고용창출효과가 크지 않은 편임

2. 제조업 해외투자의 현황분석

(1) 어떤 업종이 어느 정도 규모로 진출해 있는가?

- ❖ **전자산업이나 의류산업** 등은 생산품의 부피가 작고 운송이 용이하여 생산지의 전환이 쉬운 업종이며 다른 산업에 비해서 비교적 노동력에 의존하는 비중이 큰 산업
 - 이런 산업들은 생산지의 전환이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국내 및 해외 현지의 생산 환경 변화에 따라 국내 복귀의 가능성이 높은 산업
 - 또한 노동력에의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국내복귀 시 고용창출효과도 기대 가능
- ❖ **중국 진출 자동차 산업** 관련 업체의 경우 중국 자동차 산업정책의 특수성에 의해서 복귀의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판단됨

2. 제조업 해외투자의 현황분석

(1) 어떤 업종이 어느 정도 규모로 진출해 있는가?

❖ 제조업 해외진출의 업종별 현황

- 해외진출 업종 중에 상위권을 차지하는 업종은 전자, 기계, 자동차, 의류·액세서리·모피, 화학 등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전자산업
- 그 외에 식료품 제조업이나 기계·가구를 제외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등의 비중이 큼

❖ 업종별 투자 규모

- 1차금속 제조업은 법인수는 적지만 투자규모가 큰 편
- 의류 산업은 진출한 법인의 수는 많지만 투자규모는 작은 편

: 이는 의류산업의 해외진출은 대체적으로 소규모 영세기업 위주로 이루어져왔음을 시사

2. 제조업 해외투자의 현황분석

(1) 어떤 업종이 어느 정도 규모로 진출해 있는가?

❖ 2011-2015년간 제조업 해외투자 상위 10개 업종 (단위: 천 달러)

업종	신규법인수	업종	투자금액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847 (16.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0,436,184 (24.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664 (1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6,364,198 (15.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442 (8.6%)	1차 금속 제조업	4,858,207 (11.5%)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402 (7.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3,031,213 (7.2%)
전기장비 제조업	360 (7.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454,357 (5.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351 (6.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441,739 (5.8%)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94 (5.7%)	전기장비 제조업	2,011,706 (4.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55 (5.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784,762 (4.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50 (4.9%)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600,334 (3.8%)
기타 제품 제조업	243 (4.7%)	식료품 제조업	1,327,130 (3.2%)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2. 제조업 해외투자의 현황분석

(2)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진출해 있는가?

- ❖ 업종별로도 그 특성이나 해외진출 동기에 따라 복귀의 가능성이 높은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이 있음
- ❖ 기업의 복귀에는 현지임금 상승 등 노동비용과 관련된 환경변화가 가장 큰 요인을 차지하고 있음
 - 따라서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진출의 비중이 높은 산업이 현지임금 상승 등에 따라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 이러한 목적의 해외진출은 저임활용 혹은 수출촉진으로 분류
 - 인력보다는 설비나 장치를 위주로 하는 산업 또는 현지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투자의 비중이 큰 산업 등은 복귀의 가능성이 높지 않음
- ❖ 특히 대기업 협력관련으로 진출한 업체의 경우 앵커역할을 하는 대기업의 현지법인이 복귀를 하지 않으면 복귀를 할 동기가 다른 경우보다 부족함

2. 제조업 해외투자의 현황분석

(2)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진출해 있는가?

❖ 제조업 해외투자의 목적별 비중 변화 추이 (신규법인수 기준)

연도	1991-1995	1996-2000	2001-2005	2006-2010	2011-2015
자원개발	7.5%	1.4%	1.8%	2.5%	1.2%
수출촉진	43.2%	40.4%	34.9%	25.4%	19.3%
보호무역타개	2.3%	2.2%	2.0%	0.9%	0.2%
저임활용	34.2%	34.9%	36.5%	25.5%	16.4%
원자재확보	4.4%	3.3%	3.1%	1.5%	0.0%
선진기술도입	1.3%	3.1%	1.9%	2.5%	2.3%
현지시장진출	1.2%	2.2%	4.7%	35.1%	58.9%
제3국진출	0.0%	0.0%	0.1%	1.1%	1.5%
기타	6.0%	12.4%	15.0%	5.5%	0.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2. 제조업 해외투자의 현황분석

(2)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진출해 있는가?

❖ 제조업 해외투자의 목적별 비중 변화 추이 (투자금액 기준)

연도	1991-1995	1996-2000	2001-2005	2006-2010	2011-2015
자원개발	11.4%	3.0%	1.6%	1.6%	1.9%
수출촉진	53.1%	53.4%	46.0%	24.4%	20.3%
보호무역타개	1.6%	6.3%	3.1%	1.4%	0.5%
저임활용	15.8%	11.3%	16.0%	16.2%	10.5%
원자재확보	2.4%	2.1%	0.7%	0.3%	0.1%
선진기술도입	5.1%	1.9%	2.4%	2.5%	5.2%
현지시장진출	6.0%	12.9%	19.9%	48.0%	57.3%
제3국진출	0.0%	0.0%	0.1%	2.0%	3.8%
기타	4.6%	9.0%	10.2%	3.6%	0.3%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2. 제조업 해외투자의 현황분석

(2)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진출해 있는가?

❖ 2011-2015년간 주요업종의 목적별 해외투자 비중 (신규법인수 기준)

	전자	기계	자동차	화학	금속 가공	식료품	섬유	의류· 액세서리·모피
자원개발	0.2%	0.3%	0.0%	2.2%	0.8%	6.7%	1.9%	0.0%
수출촉진	21.5%	21.4%	17.8%	15.4%	13.1%	9.3%	23.9%	25.5%
보호무역타개	0.4%	0.0%	0.0%	0.3%	0.0%	0.5%	8.8%	0.0%
저임활용	19.0%	9.1%	10.7%	5.9%	11.5%	8.8%	34.6%	41.6%
원자재확보	0.0%	0.0%	0.0%	0.0%	0.0%	0.5%	0.0%	0.0%
선진기술도입	4.4%	2.8%	1.1%	4.8%	1.2%	1.0%	0.6%	0.2%
현지시장진출	52.2%	65.4%	69.5%	69.9%	72.6%	71.0%	34.0%	31.2%
제3국진출	2.2%	0.9%	0.8%	1.4%	0.8%	2.1%	1.9%	1.5%
기타	0.0%	0.0%	0.0%	0.0%	0.0%	0.0%	0.0%	0.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2. 제조업 해외투자의 현황분석

(2)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진출해 있는가?

❖ 2011-2015년간 주요업종의 목적별 해외투자 비중 (투자금액 기준)

	전자	기계	자동차	화학	금속 가공	식료품	섬유	의류· 액세서리·모피
자원개발	0.2%	0.4%	0.0%	3.5%	1.5%	11.5%	1.1%	0.0%
수출촉진	22.8%	31.0%	20.0%	13.8%	35.0%	7.6%	20.4%	36.8%
보호무역타개	0.1%	2.5%	0.2%	0.2%	1.0%	2.0%	5.9%	0.0%
저임활용	10.1%	13.3%	4.0%	2.0%	10.7%	2.6%	22.9%	32.5%
원자재확보	0.3%	0.0%	0.0%	0.1%	0.0%	0.0%	0.1%	0.5%
선진기술도입	8.3%	2.4%	2.0%	18.3%	0.4%	0.2%	0.3%	0.6%
현지시장진출	55.9%	50.2%	72.9%	61.3%	49.4%	68.6%	45.3%	29.4%
제3국진출	2.0%	0.2%	0.2%	0.7%	1.7%	5.6%	0.3%	0.1%
기타	0.2%	0.1%	0.6%	0.1%	0.3%	1.9%	0.9%	0.1%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2. 제조업 해외투자의 현황분석

(3) 어느 지역에 진출해 있는가?

❖ 기업의 진출 자체가 적은 지역은 당연히 복귀의 수요도 작을 수 밖에 없음

→ 기업이 진출해 있지 않은 지역은 복귀기업 유치활동의 효과가 적음

❖ 최근 5년간 제조업 해외투자 상위 3개국은 중국, 베트남, 미국 (신규법인수/투자금액 기준)

- 그 외에 인도네시아, 인도, 멕시코, 홍콩 등이 상위 10개국 안에 포함

- 그 중에서 조세회피처로서 논란이 있는 홍콩을 제외하면 상기 국가들이 복귀의 가능성이 있는 해외진출 기업이 분포하는 지역으로 간주 가능

2. 제조업 해외투자의 현황분석

(3) 어느 지역에 진출해 있는가?

- ❖ 지역별 진출 업종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자 산업 관련 업종이 다수를 차지
 - 미국은 기계, 의료/광학/정밀장비, 전기장비 등 기술집약적 업종의 진출 비중이 높음
 - 의류/액세서리/모피 등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 비중이 높은 편
 - 멕시코와 인도는 자동차 및 1차금속 산업의 비중이 높은 편
- ➔ 이상 종합해서 볼 때, 복귀기업 유치활동의 주요 타겟 지역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

2. 제조업 해외투자의 현황분석

(3) 어느 지역에 진출해 있는가?

❖ 2011-2015년간 제조업 해외투자 상위 10개국

국가	신규법인수	국가	투자금액
중국	1,810	중국	14,592,764
베트남	1,081	미국	4,028,520
미국	510	베트남	3,901,555
인도네시아	238	브라질	2,655,895
일본	170	인도네시아	2,223,706
태국	112	홍콩	1,649,072
홍콩	110	인도	1,479,141
인도	105	필리핀	1,459,771
멕시코	82	멕시코	1,338,573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2. 제조업 해외투자의 현황분석

(3) 어느 지역에 진출해 있는가?

❖ 2011-2015년간 주요국 제조업 업종별 해외투자 현황

중 국			
신규법인수		투자금액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6,154,61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5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665,96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2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1,175,72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139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83,287
전기장비 제조업	12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711,614
기타 제품 제조업	105	1차 금속 제조업	623,708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96	전기장비 제조업	603,95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4	식료품 제조업	464,01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8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312,888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72	기타 제품 제조업	180,138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2. 제조업 해외투자의 현황분석

(3) 어느 지역에 진출해 있는가?

❖ 2011-2015년간 주요국 제조업 업종별 해외투자 현황

미 국			
신규법인수		투자금액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0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873,31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6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508,69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4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501,465
전기장비 제조업	44	기타 제품 제조업	479,02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34	전기장비 제조업	436,46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4	1차 금속 제조업	291,752
식료품 제조업	28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33,749
기타 제품 제조업	25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86,57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2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54,55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2	식료품 제조업	107,14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2. 제조업 해외투자의 현황분석

(3) 어느 지역에 진출해 있는가?

❖ 2011-2015년간 주요국 제조업 업종별 해외투자 현황

베 트 남			
신규법인수		투자금액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7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959,032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5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526,70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99	1차 금속 제조업	375,911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3	전기장비 제조업	337,48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62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252,137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6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46,20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5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99,714
전기장비 제조업	5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75,072
기타 제품 제조업	41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71,429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3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39,087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2. 제조업 해외투자의 현황분석

(3) 어느 지역에 진출해 있는가?

❖ 2011-2015년간 주요국 제조업 업종별 해외투자 현황

인도네시아			
신규법인수		투자금액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37	1차 금속 제조업	769,057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7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438,044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21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270,79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6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228,511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5	식료품 제조업	141,228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5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90,07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1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4,21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4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52,811
기타 제품 제조업	14	기타 제품 제조업	39,843
전기장비 제조업	1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9,832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2. 제조업 해외투자의 현황분석

(3) 어느 지역에 진출해 있는가?

❖ 2011-2015년간 주요국 제조업 업종별 해외투자 현황

인도			
신규법인수		투자금액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3	1차 금속 제조업	588,401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31,47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1	전기장비 제조업	172,19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63,756
전기장비 제조업	9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33,553
1차 금속 제조업	7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9,3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9,0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0,17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5	식료품 제조업	10,12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4,552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2. 제조업 해외투자의 현황분석

(3) 어느 지역에 진출해 있는가?

❖ 2011-2015년간 주요국 제조업 업종별 해외투자 현황

멕시코			
신규법인수		투자금액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8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014,29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0	1차 금속 제조업	140,24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7	전기장비 제조업	50,844
전기장비 제조업	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0,399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32,62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4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2,28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3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0,04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3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7,500
기타 제품 제조업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4,607
1차 금속 제조업	2	가구 제조업	2,30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2-1. 지역별 해외투자 현황

❖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지역별 투자현황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지역별 투자 현황 (2005-2014 총합)] (단위: 개, 천 달러)

		전체 투자		제조업 투자	
		신규법인수	투자총액	신규법인수	투자총액
중국	산둥성	3,900	6,720,371	2,649	5,959,273
	상하이	1,546	2,234,341	501	841,599
	장쑤성	1,439	9,293,298	1,020	8,126,015
	베이징	1,231	1,730,251	339	5,144,573
	랴오닝성	1,328	2,875,709	718	1,558,267
	톈진	961	2,545,541	657	1,799,276
	광둥성	726	2,725,541	444	2,406,152
	저장성	697	1,732,061	250	944,768
	지린성	370	810,655	139	303,780
	쓰촨성	89	371,798	33	281,798
	충칭	44	523,260	21	447,307
베트남		2,634	9,759,855	1,590	5,314,873
인도네시아		1,084	5,929,014	513	2,718,759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2-1. 지역별 해외투자 현황

(1) 산동성

- ❖ 산동성은 2005-2014년간 총 3,900개 법인이 진출. 그 중 제조업은 2,649개
- ❖ 그 중에서 최근 5년간의 투자는 총 1,020개 법인 진출에 제조업은 542개로 법인 총 수는 약 1/3, 제조업체 수는 약 1/4 수준으로 급격하게 감소
- ❖ 이는 한국 기업의 산동성 진출이 감소하고 있으며 현재는 기업들의 복귀 잠재수요가 높으나 5~10년 후에는 복귀의 잠재수요가 높지 않음을 시사
- ❖ 산동성에 진출한 주요 업종은 2000년대 후반에는 전자, 기타제품, 섬유 의복, 식료품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나 2010년대 초반에는 자동차 산업의 비중이 커지고 있음
- ❖ 또한 산동성의 경우에는 기업들의 이전 움직임이 본격화되기 시작하고 있으므로 복귀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며 전자, 섬유 의복 등에 초점을 맞추어서 복귀기업을 유치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으로 보임

2-1. 지역별 해외투자 현황

(1) 산동성

[한국기업의 대 산동성 투자추이] (단위: 개, 천 달러)

		2005	2006	2007	2008	2009	2005-09
전체투자	신규법인	871	787	723	330	169	2,880
	투자총액	714,671	875,037	843,571	845,836	445,256	3,724,371
제조업	신규법인	670	604	514	211	108	2,107
	투자총액	640,583	756,893	705,979	685,999	398,930	3,729,363
		2010	2011	2012	2013	2014	2010-14
전체투자	신규법인	243	194	233	194	156	1,020
	투자총액	721,080	606,527	1,103,537	283,464	281,392	2,996,000
제조업	신규법인	155	125	80	93	89	542
	투자총액	660,239	544,269	528,642	236,604	260,156	2,229,91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2-1. 지역별 해외투자 현황

(1) 산동성

[산동성 진출 제조업 상위 10개 업종] (단위: 개, 천 달러)

신규법인수 기준			
2005 - 2009		2010 - 2014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319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85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287	기타 제품 제조업	68
기타 제품 제조업	231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66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77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56
식료품 제조업	15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8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11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7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13	식료품 제조업	2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9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89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2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5	전기장비 제조업	24
투자총액 기준			
2005 - 2009		2010 - 2014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481,419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663,37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53,62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28,682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238,137	식료품 제조업	195,617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232,22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80,839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207,734	기타 제품 제조업	163,130
기타 제품 제조업	197,60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23,178
식료품 제조업	192,01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84,53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91,709	1차 금속 제조업	83,412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77,342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72,506
1차 금속 제조업	152,795	전기장비 제조업	65,774

2-1. 지역별 해외투자 현황

(2) 장쑤성

- ❖ 최근 10년간 장쑤성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신규법인의 수는 1439개로 그 중 제조업은 1,020개
- ❖ 그 중에서 2010-14년간의 진출 규모는 2005-2009년간의 약 70% 수준으로 산둥성과 마찬가지로 한국기업의 해외진출 규모가 감소하고 있음
- ❖ 장쑤성도 산둥성과 마찬가지로 전자 산업의 비중이 높은 편이나 자동차 및 기계장비 산업의 비중이 높은 것이 산둥성과의 차이점
: 전술했듯이 중국의 자동차산업 정책의 특성 때문에 자동차 산업 관련 업체들의 복귀 가능성은 높지 않은 편임
- ❖ 따라서 산둥성에서는 섬유와 전자 산업을 두 축으로 복귀활동 유치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면 장쑤성에서는 전자산업에 집중한 전략을 선택해야 함

2-1. 지역별 해외투자 현황

(2) 장쑤성

[한국기업의 대 장쑤성 투자추이] (단위: 개, 천 달러)

		2005	2006	2007	2008	2009	2005-2009
전체투자	신규법인	200	239	211	129	68	847
	투자총액	635,513	1,136,066	1,632,921	549,356	520,350	4,474,206
제조업	신규법인	152	187	176	91	45	651
	투자총액	564,032	1,082,046	1,575,130	507,104	455,870	4,184,182
		2010	2011	2012	2013	2014	2010-2014
전체투자	신규법인	113	123	156	110	90	592
	투자총액	1,192,244	736,103	1,410,323	942,012	538,410	4,819,092
제조업	신규법인	91	89	65	69	55	369
	투자총액	1,144,512	702,676	686,247	902,229	506,169	3,941,833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 통계

2-1. 지역별 해외투자 현황

(2) 장쑤성

[장쑤성 진출 제조업 상위 10개 업종] (단위: 개, 천 달러)

신규법인수 기준			
2005 - 2009		2010 - 2014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40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80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8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6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78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61
전기장비 제조업	48	전기장비 제조업	31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3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6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37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3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6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8	기타 제품 제조업	1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5	1차 금속 제조업	8
투자총액 기준			
2005 - 2009		2010 - 2014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269,97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921,223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12,013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739,132
1차 금속 제조업	257,857	전기장비 제조업	267,40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94,981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22,17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191,02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01,304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189,418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59,278
전기장비 제조업	147,509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124,46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06,407	기타 제품 제조업	82,95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88,016	1차 금속 제조업	72,60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79,08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46,145

2-1. 지역별 해외투자 현황

(3) 랴오닝성·톈진

- ❖ 최근 10년간 랴오닝성에 진출한 신규법인의 수는 1,328개로 그 중 제조업은 718개
- ❖ 랴오닝성에 신규진출한 법인의 수는 2005-09년 1,040개에서 2010-2014년 288개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복귀의 잠재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보임
 - ➔ 따라서 산둥성과 마찬가지로 즉각적인 복귀기업 유치전략의 수립이 요구됨
- ❖ 그러나 랴오닝성과 톈진은 개별 업체보다는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업체의 진출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점이 산둥성과의 차이점
 - : 이러한 지역은 앵커 역할을 하는 대기업의 움직임이 협력업체의 움직임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복귀 유치활동은 실효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임

2-1. 지역별 해외투자 현황

(3) 라오닝성·톈진

[한국기업의 대 라오닝성 투자추이]

		2005	2006	2007	2008	2009	2005-09
전체투자	신규법인	271	257	277	149	86	1,040
	투자총액	189,419	190,721	491,206	543,980	250,440	1,665,766
제조업	신규법인	180	165	155	76	29	605
	투자총액	117,116	129,989	318,612	296,525	116,146	978,388
		2010	2011	2012	2013	2014	2010-14
전체투자	신규법인	71	74	70	37	36	288
	투자총액	283,136	506,909	232,516	143,044	44,338	1,209,943
제조업	신규법인	29	37	23	14	10	113
	투자총액	117,776	187,237	111,030	125,044	38,792	579,879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2-1. 지역별 해외투자 현황

(3) 라오닝성·톈진

[한국기업의 대 톈진 투자추이]

		2005	2006	2007	2008	2009	2005-09
전체투자	신규법인	215	177	152	117	71	732
	투자총액	233,061	305,791	305,613	208,283	454,887	1,507,635
제조업	신규법인	160	136	120	78	46	540
	투자총액	196,911	258,859	277,963	178,482	152,571	1,064,786
		2010	2011	2012	2013	2014	2010-14
전체투자	신규법인	56	36	64	45	28	229
	투자총액	257,793	265,433	212,655	147,573	154,452	1,037,906
제조업	신규법인	37	20	20	27	13	117
	투자총액	242,513	196,492	94,240	110,979	90,266	734,49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2-1. 지역별 해외투자 현황

(4) 광둥성

- ❖ 최근 10년간 광둥성에 진출한 신규법인 수는 726개로 최근 10년간 중국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한국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편은 아니었으나 매년 진출규모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이 다른 지역과의 차이점
 - ❖ 따라서 광둥성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유치활동은 기업들의 이전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산둥성이나 신규법인의 유입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랴오닝성 등과는 달리, 장기적인 안목에서 유치전략을 수립할 수 있음
 - ❖ 광둥성은 전자산업 계통의 진출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
- ➔ 따라서 장쑤성과 마찬가지로 전자산업에 특화된 복귀기업 유치전략이 필요

2-1. 지역별 해외투자 현황

(4) 광둥성

[한국기업의 대 광둥성 투자추이]

		2005	2006	2007	2008	2009	2005-09
전체투자	신규법인	63	77	77	66	69	352
	투자총액	82,696	129,017	209,126	231,672	108,575	761,086
제조업	신규법인	52	59	48	47	45	251
	투자총액	78,819	127,177	200,250	222,603	105,480	734,32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0-14
전체투자	신규법인	59	54	98	75	88	374
	투자총액	168,398	441,429	442,377	521,760	390,491	1,964,455
제조업	신규법인	42	32	35	43	41	193
	투자총액	161,763	432,794	215,575	483,946	377,745	1,671,823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 통계

2-1. 지역별 해외투자 현황

(4) 광둥성

[광둥성 진출 상위 10개 업종]

신규법인수 기준			
2005 - 2009		2010 - 2014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90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62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20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6
전기장비 제조업	2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1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14	전기장비 제조업	17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2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1	기타 제품 제조업	7
기타 제품 제조업	8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4
1차 금속 제조업	7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4
투자총액 기준			
2005 - 2009		2010 - 2014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474,65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204,15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77,272	1차 금속 제조업	249,874
1차 금속 제조업	43,175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87,347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9,050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5,403
전기장비 제조업	17,803	전기장비 제조업	25,158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16,538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0,65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3,53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5,27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0,070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11,208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893	식품 제조업	9,590
기타 제품 제조업	9,768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7,872

2-1. 지역별 해외투자 현황

(5) 베트남

- ❖ 2005-2014년간 베트남 지역에 진출한 신규법인의 수는 2,634개로 그 중 제조업 기업은 1,590개
- ❖ 한국기업의 진출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점이 중국 각 지역과의 차이점
 - 이는 한국기업들이 해외생산기지를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돌리고 있음을 시사
- ❖ 베트남지역 진출기업 업종구성의 특징은 의복 및 섬유관련 제품 제조업의 비중이 높다는 점과 초기에는 전자산업의 비중이 낮았다가 후기에 높아지는 점, 자동차 산업의 비중이 낮아지는 점으로 이 또한 중국지역의 진출양상과 대비되는 특징임
- ❖ 베트남지역에 진출한 기업의 복귀를 위해서는 현재 한국기업의 진출이 증가세를 보인다는 점에서 중국지역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복귀기업 유치전략을 세워야 하며 업종은 섬유 및 의복 관련 산업을 위주로 시작하여 전자 관련 산업으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1. 지역별 해외투자 현황

(5) 베트남

- ❖ 단, 베트남 지역은 지역별로 진출한 한국기업의 움직임에 차이가 있음. 초기에 한국기업의 진출이 활발했던 호치민을 중심으로 하는 남부지역은 이미 중국 지역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하노이를 중심으로 하는 북부지역은 한국기업의 신규유입이 활발하여 투자규모 면에서 남부지역을 추월하고 있음
- ❖ 따라서 남부지역에는 중국지역과 마찬가지로 신속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북부지역에는 그보다는 좀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복귀기업 유치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2-1. 지역별 해외투자 현황

(5) 베트남

[한국기업의 대 베트남 투자 추이]

		2005	2006	2007	2008	2009	2005-09
전체투자	신규법인	176	268	402	283	163	1,292
	투자총액	325,652	597,438	1,295,307	1,371,169	608,847	4,198,413
제조업	신규법인	138	175	228	136	75	752
	투자총액	184,941	269,511	597,718	660,420	306,497	2,019,087
		2010	2011	2012	2013	2014	2010-14
전체투자	신규법인	214	190	195	311	432	1,342
	투자총액	855,697	1,049,787	967,195	1,130,692	1,558,071	5,561,442
제조업	신규법인	109	104	118	202	305	838
	투자총액	462,959	536,821	526,442	782,326	987,238	3,295,786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2-1. 지역별 해외투자 현황

(5) 베트남

[베트남 진출 상위 10개 업종]

신규법인수 기준			
2005 - 2009		2010 - 20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19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06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105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3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5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34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49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61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9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0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4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67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45	전기장비 제조업	5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4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4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40
기타 제품 제조업	36	1차 금속 제조업	21
투자총액 기준			
2005 - 2009		2010 - 2014	
1차 금속 제조업	349,34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703,55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273,56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445,547
전기장비 제조업	271,125	1차 금속 제조업	410,228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197,828	전기장비 제조업	282,797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71,316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217,436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54,675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97,11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122,949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63,603
식품 제조업	114,664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39,44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86,36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16,75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80,40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07,639

2-1. 지역별 해외투자 현황

(6) 인도네시아

- ❖ 2005-2014년간 인도네시아로 진출한 신규법인의 수는 1,084개로 그 중 제조업 기업은 513개임
- ❖ 인도네시아 지역에서의 투자는 2005-14년 기간 동안 거의 일정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2012년 이후 투자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 2010~2011년의 투자의 일시적인 증가세는 경제 외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보임
 -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한국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은 실질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 인도네시아 지역에 진출한 기업의 업종구성 특징은 섬유·의복 관련산업의 비중이 높은 점과 전자관련 산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점
- ❖ 따라서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복귀기업 유치전략은 단기적으로는 섬유·의복과 전자 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섬유관련 산업에 집중하는 것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됨

2-1. 지역별 해외투자 현황

(6) 인도네시아

[한국기업의 대 인도네시아 투자추이]

		2005	2006	2007	2008	2009	2005-09
전체투자	신규법인	85	122	127	140	82	556
	투자총액	111,823	189,699	315,174	544,264	378,890	1,539,850
제조업	신규법인	44	63	48	63	27	245
	투자총액	76,837	108,229	144,290	158,863	72,813	561,032
		2010	2011	2012	2013	2014	2010-14
전체투자	신규법인	111	153	97	95	72	528
	투자총액	927,529	1,296,885	998,685	450,292	715,773	4,389,164
제조업	신규법인	55	87	47	50	29	268
	투자총액	176,768	858,754	496,069	209,403	416,733	2,157,727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2-1. 지역별 해외투자 현황

(6)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진출 상위 10개 업종]

신규법인수 기준			
2005 - 2009		2010 - 20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48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45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3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4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2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19	기타 제품 제조업	22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6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9
기타 제품 제조업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8
식료품 제조업	1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7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1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14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9	전기장비 제조업	13
투자총액 기준			
2005 - 2009		2010 - 20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53,259	1차 금속 제조업	773,29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83,273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438,669
식료품 제조업	68,02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235,064
기타 제품 제조업	42,660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230,158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42,166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79,80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40,49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78,057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37,194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53,808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35,22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2,930
1차 금속 제조업	13,510	기타 제품 제조업	48,73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10,167	식료품 제조업	47,488

2-1. 지역별 해외투자 현황

❖ 지역별 복귀기업 유치전략

지역	한국기업의 진출 추이	유치전략의 성격	유치활동 대상 업종
산둥성	- 감소	즉각적인 유치전략이 필요	섬유·의복, 전자
장쑤성	- 급격하게 감소	즉각적인 유치전략이 필요	전자
랴오닝·톈진	- 급격하게 감소	즉각적인 유치전략이 필요하나 대기업 협력업체의 비중이 높아 복귀기업 유치수요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광둥성	- 현상유지	즉각적인 전략보다는 중장기적인 안목이 필요	전자
베트남	- 기본적으로는 증가 - 지역에 따라 차이 (남부: 감소, 북부: 증가)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나 남부지역의 경우에는 즉각적인 대응책이 필요	섬유·의복 → 전자로 확대
인도네시아	- 실질적으로 감소	즉각적인 유치전략이 필요	전자, 섬유·의복 → 섬유·의복에 집중

2-2. 생산비용 비교

(1) 한국과 주요국가의 인건비 및 노동생산성 비교

1) 인건비

[2014년 서울과 아시아 주요도시 간의 인건비 비교 (서울 = 100)]

	서울	베이징	광저우	상하이	칭다오	우한	하노이	호치민	양곤	자카르타	델리	뭄바이
일반기능공	100	31.5	25.7	26.3	22.2	23.7	9.6	10.3	7.1	14.7	21.2	19.2
중견숙련기능공	100	34.9	29.8	35.9	22.9	27.6	15.1	13.3	14.8	16.2	28.2	24.3
중간관리직	100	48.7	41.8	45.2	30.7	40.4	25.0	22.8	27.7	29.5	51.8	38.4
비제조업일반직	100	46.0	39.9	38.4	28.2	30.1	18.1	19.6	14.5	17.6	27.7	22.5
비제조업관리직	100	62.6	49.8	60.2	38.2	44.0	25.7	29.5	24.0	29.5	41.0	35.1
법정최저임금	100	31.9	31.6	37.1	29.1	23.8	18.3	18.3	-	26.8	17.0	13.9

주: 미얀마는 법정최저임금 자료 미비

자료: JETRO, 아시아·오세아니아 주요도시 투자 코스트 비교

- ❖ 명목임금을 기준으로 한 아시아 주요도시의 일반기능공 인건비는 서울의 10~30% 수준임. 중국 지역이 25~30% 수준, 인도가 약 20% 수준, 인도네시아가 약 15%, 베트남이 약 10%
- ❖ 그러나 국가별로 노동생산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인건비는 동일 생산량에 투입되어야 하는 노동자의 수를 고려해야 함

2-2. 생산비용 비교

(1) 한국과 주요국가의 인건비 및 노동생산성 비교

2) 노동생산성

가. 노동생산성 비교

[한국 노동자 1명과 같은 양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되어야 하는 노동자 수] (단위: 명)

한국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미얀마	인도
1.00	2.74	3.24	6.94	8.18	4.60

자료: Asia Productivity Organization (2014), APO Productivity Databook 2014

- ❖ 한국에서는 노동자 1명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에 인도네시아는 약 2.7명, 중국은 약 3.2명, 인도는 약 4.6명, 베트남은 약 7명, 미얀마는 약 8명을 투입되어야 함
- ❖ 즉 해당지역 1인당 인건비에 해당 숫자만큼을 곱한 값과 한국의 1인당 인건비의 차이가 진정한 인건비 차이
- ❖ 그렇게 해서 계산한 결과는 중국이 한국의 70~80% 수준, 인도는 한국의 80~90% 수준, 베트남은 한국의 60~70% 수준, 미얀마는 한국의 60% 수준임

2-2. 생산비용 비교

(1) 한국과 주요국가의 인건비 및 노동생산성 비교

2) 노동생산성

나. 노동생산성 상승률

[국가별 노동생산성 상승률] (단위: %)

	한국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1990-1995	5.5	10.6	4.7	6.4	2.6
1996-2000	4.9	7.1	6.6	-2.4	3.4
2001-2005	4.0	8.6	6.7	3.3	2.6
2006-2012	3.6	9.5	2.9	3.5	6.9

자료: Asia Productivity Organization (2014), APO Productivity Databook 2014

- ❖ 중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노동생산성의 상승률은 한국과 큰 차이가 없거나 한국보다 낮은 수준
- ❖ 해당 지역의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하면 저임금에 의한 생산비용의 절감효과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감소할 것으로 보임

2-2. 생산비용 비교

(1) 한국과 주요국가의 인건비 및 노동생산성 비교

3) 명목임금 상승률

[각 지역의 명목임금상승률] (단위: %)

	서울	베이징	광저우	상하이	칭다오	우한	하노이	호치민	양곤	자카르타	델리	뭄바이
2011	-0.9	15.5	11.6	11.1	14.8	16.1	-	-	-	18.5	11.3	11.1
2012	5.3	12.5	10.9	8.3	14.2	7.2	-	-	-	43.9	9.2	13.1
2013	3.8	10.2	-	7.3	14.1	9.8	-	-	-	11.0	11.1	10.5

자료: JETRO, 아시아·오세아니아 주요도시 투자 코스트 비교

주: 베트남과 미얀마는 자료 없음

2-2. 생산비용 비교

(1) 한국과 주요국가의 인건비 및 노동생산성 비교

3) 명목임금 상승률

- ❖ 각 지역의 노동생산성의 상승 효과를 상쇄하는 것이 해당 지역의 명목임금 상승률
- ❖ 명목임금 상승 속도가 노동생산성의 상승 속도보다 빠르면 해당 지역과 한국과의 임금격차가 줄어드는 속도도 그만큼 빠름
- ❖ 대부분의 지역이 10%를 넘거나 10%에 가까운 명목임금 상승률을 보이고 있음
- ❖ 이는 약 5년이면 명목임금 상승에 의한 임금비용이 60~70%정도 증가함을 의미
- ❖ 그에 비하면 서울의 경우는 같은 기간 중 20% 상승에 머무름

2-2. 생산비용 비교

(1) 한국과 주요국가의 인건비 및 노동생산성 비교

4) 사회보장부담률 및 상여지급비율

[각 지역의 사회보장부담률 및 상여지급비율] (단위: %)

	서울	베이징	광저우	상하이	칭다오	우한	하노이	호치민	양곤	자카르타	델리	뭄바이
사회보장 부담률	8.6~42.5	44.0~46.8	27.3~51.9	42.0	34.7~41.7	39.2~44.7	22.0	22.0	6~7.5 +사회보장주택기금 (25%이상)	8.24~9.74	13.61	13.51
상여지급 비율	3.36	1.84	2.51	1.91	1.81	2.64	1.66	1.59	1.32	2.18	2.01	1.61

자료: JETRO, 아시아·오세아니아 주요도시 투자 코스트 비교

- ❖ 상여지급비율은 한국이 높은 편이나 사회보장부담률은 다른 지역도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음
- ❖ 특히 대부분의 지역이 사회주의 경제체제로부터 전환한 경제라 사회보장부담률이 높을뿐더러 기업에 사회보장관련 비용 부담을 강력하게 요구

2-2. 생산비용 비교

(2) 기타 비용 비교

- ❖ 물류비, 토지, 전기·수도·가스 요금도 현지가 더 높으며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율도 한국보다 결코 낮지 않음
- ❖ 즉, 생산활동에 있어서 인건비 부분을 제외하면 기타 제반 비용은 현지 생산이 더 비용이 높음. 따라서 인건비가 이러한 차이를 상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지생산의 이점은 감소

2-2. 생산비용 비교

(2) 기타 비용 비교

1) 물류비

[각 지역의 제3국 수출에 드는 물류비 비교 (2014년 기준)] (단위: 달러)

서울	베이징	광저우	상하이	칭다오	우한	하노이	호치민	양곤	자카르타	델리	뭄바이
2,300	3,070	2,422	2,544	1,809	3,478	3,940	2,500~3,700	2,600~2,800	2,900	3,789	3,340

주) 2014년 기준 해당 도시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로부터 미국 로스앤젤레스 항으로 40피트 컨테이너를 수송할 때 드는 비용. 해상운송비만 포함

자료: JETRO, 아시아·오세아니아 주요도시 투자 코스트 비교

2-2. 생산비용 비교

(2) 기타 비용 비교

2) 토지 관련 비용

[각 지역의 업무용 토지 및 사무실 1m² 당 비용 (2014년 기준)] (단위: 달러)

	서울*	베이징	광저우	상하이	칭다오	우한	하노이	호치민	양곤	자카르타	델리	뭄바이
공업단지 토지구입가	316	73~90	98	196~245	41	55	-	-	-	170~195	47~87	52
공업단지 토지임차료	0.19	4.90~7.35	2.94~8.16	3.43~4.90	1.63~2.94	1.63~3.59	0.13~0.22	0.10~0.25	0.42	7~9	2.32~15	-
사무실 임차료	54	109	24	54	24~29	18~29	26~40	15~36	90	50	22	16~55

자료: JETRO, 아시아·오세아니아 주요도시 투자 코스트 비교

2-2. 생산비용 비교

(2) 기타 비용 비교

3) 전기·수도·가스 요금

[각 지역의 업무용 전기·수도·가스 요금 (2014년 기준)] (단위: 달러)

	서울	베이징	광저우	상하이	칭다오	우한	하노이	호치민	양곤	자카르타	델리	뭄바이
전기	0.07 (5.01)	0.14	0.11~0.12 (3.76)	0.14~0.16	0.14~0.15	0.16	0.04~0.11	0.04~0.11	0.10~0.15	0.09	0.11~0.15 (2.31~2.78)	0.12 (3.16~3.94)
수도	0.69~0.87 (0.51)	1.33	0.79	0.80~0.82	0.55~0.73	0.61	0.46	0.45	0.88	1.00 (5.50)	2.10 (19.00)	0.34
가스	0.74	0.60	0.79	0.59~0.78	0.39	0.56~0.67	0.66	0.39	0.29	0.30 (0.27)	0.51	0.55

주1) 전기요금은 1kWh 당 요금. 서울·광저우·뭄바이의 괄호 안 숫자는 별도로 지불해야하는 기본료

주2) 수도와 가스요금은 1m³ 당 요금. 서울·자카르타·델리의 괄호 안 숫자는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 기본료

주3) 하노이의 가스요금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부과되는 요금체계가 다름. 표에서 제시한 요금은 제조업 업체에 부과되는 요금 기준.

주4) 서울·베이징·상하이·광저우·칭다오·우한·자카르타는 LNG, 하노이·호치민·델리·뭄바이는 LPG의 가격. 양곤의 가스 종류에 관해서는 정보 없음

자료: JETRO, 아시아·오세아니아 주요도시 투자 코스트 비교

2-2. 생산비용 비교

(2) 기타 비용 비교

4) 소득세 및 부가가치 세율

[각 지역의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율] (단위: %)

	서울	베이징	광저우	상하이	칭다오	우한	하노이	호치민	양곤	자카르타	델리	뭄바이
법인소득세	22	25	25	25	25	25	22	25	25	25	30	30
개인소득세	38	45	45	45	45	45	35	35	1~20	30	0~30	0~30
부가가치세	10	17	17	17	17	17	0~10	0~10	5	10	12.5~14.5	12.5~14.5

자료: JETRO, 아시아·오세아니아 주요도시 투자 코스트 비교

3. 해외진출 기업의 복귀가능성

(1) 해외진출 기업의 복귀가능성

❖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밝혀진 해외진출 국내 기업의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중국 및 동남아 진출기업 실태조사 (KOTRA, 2014)

중국 및 동남아에 진출한 조사대상 총 399개 기업 중에서 국내 복귀 의향이 있다고 답한 현지 법인의 숫자는 전체 조사 대상 기업들 중 27개(6.7%)

- 그 외의 다른 연구에서도 설문조사 결과 국내 복귀 의향이 있다고 대답한 기업의 수는 대부분 8%를 넘지 않음

3. 해외진출 기업의 복귀 가능성

(2) 중국 및 동남아 진출기업 실태조사 (KOTRA, 2014) 분석결과

❖ 국내복귀 시기

- 국내 복귀 의향이 있다고 대답한 27개 기업 중에서 국내 복귀 시기를 묻는 질문에 10개 기업이 '미정'이라고 대답(37.0%)
- 즉, 현 시점에서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들 중에서 국내 복귀 의사를 가지고 구체적인 복귀 계획을 가지고 있는 비중은 매우 적음
- 이는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전망이 매우 불투명함을 시사

3. 해외진출 기업의 복귀 가능성

(2) 중국 및 동남아 진출기업 실태조사 (KOTRA, 2014) 분석결과

❖ 업종

- 출판·인쇄, 식료품, 목재·가구·펄프·종이, 플라스틱, 화학·의약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비교적 5년 이내의 가까운 미래에 복귀할 의사를 가진 기업의 비중이 높음
- 자동차·자동차부품, 생활용품·잡화, 고무·피혁, 기계·금속, 전기·전자·정밀부품 등은 가까운 미래에 복귀할 의사를 가진 기업의 비중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 비교적 생산제품의 부가가치가 높고, 국내 복귀 시 보다 큰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업종이 오히려 가까운 시일 내에 복귀할 의사를 가진 기업의 비중이 적음

3. 해외진출 기업의 복귀 가능성

(2) 중국 및 동남아 진출기업 실태조사 (KOTRA, 2014) 분석결과

❖ 해외진출 동기

-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한 동기는 이들을 다시 한국으로 재유치하는 데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
- 기업들이 답한 해외진출 동기
 - ✓ 한국의 경영환경 악화로 더 나은 여건을 찾아서 생산기지를 이전 (48.6%),
 - ✓ 현지 내수시장 개척 (34.6%),
 - ✓ 원자재·부품조달 및 현지자원 확보 (31.6%)
 - ✓ 협력사인 대기업과의 동반진출 (16.9%) 등 (복수응답 가능)

3. 해외진출 기업의 복귀 가능성

(2) 중국 및 동남아 진출기업 실태조사 (KOTRA, 2014) 분석결과

❖ 현지 이탈 동기

- 기업들이 대답한 현지 이탈 동기
 - ✓ 임금 등 생산비용 상승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78.9%)
 - ✓ 환경·노무·세무 등 현지 정부정책의 변화(28.1%)
 - ✓ 동반진출기업과의 협력관계 변화(15.8%)
 - ✓ 환율 변화로 인한 경쟁력 약화(14.0%) 등 (복수응답 가능)
- 해외현지 사업장의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의 상당수는 현지의 저임금 노동력과 현지로부터의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에 의존해서 운영을 지속해온 기업들이라는 점을 추측 가능
 - 이러한 기업들이 과연 인건비가 더 높은 한국으로의 복귀 의사가 있을지, 복귀 시 산업구조 고도화 및 부가가치 창출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

3. 해외진출 기업의 복귀 가능성

(2) 중국 및 동남아 진출기업 실태조사 (KOTRA, 2014) 분석결과

❖ 계량 분석 결과

- KOTRA 실태조사(2014)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기업들의 복귀 가능성을 이항로짓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여 국내 복귀 기업의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의 특성과 선호 정책을 도출
- 국내 복귀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특성
 - ✓ 동남아 진출 기업보다는 중국 진출기업
 - ✓ 전기·전자제품 제조업
 - ✓ 현지에서의 경영성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기업

3. 해외진출 기업의 복귀 가능성

(2) 중국 및 동남아 진출기업 실태조사 (KOTRA, 2014) 분석결과

❖ 계량 분석 결과

- 국내 복귀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선호하는 정책

	섬유·의류	전기·전자	기계·자동차
공장용지 가격부담 완화	○	○	○
기업입지 지원 (입지 보조금 지원, 인허가 지원)	○	○	
입지 규제 등 완화	○	○	
설비투자 금액 지원, 사업자금 처리 용자 등 금융지원	○	○	
현지 사업의 청산, 구조조정 지원	○		

4. 국내복귀기업 지원방안

(1) 복귀 대상 기업들의 선호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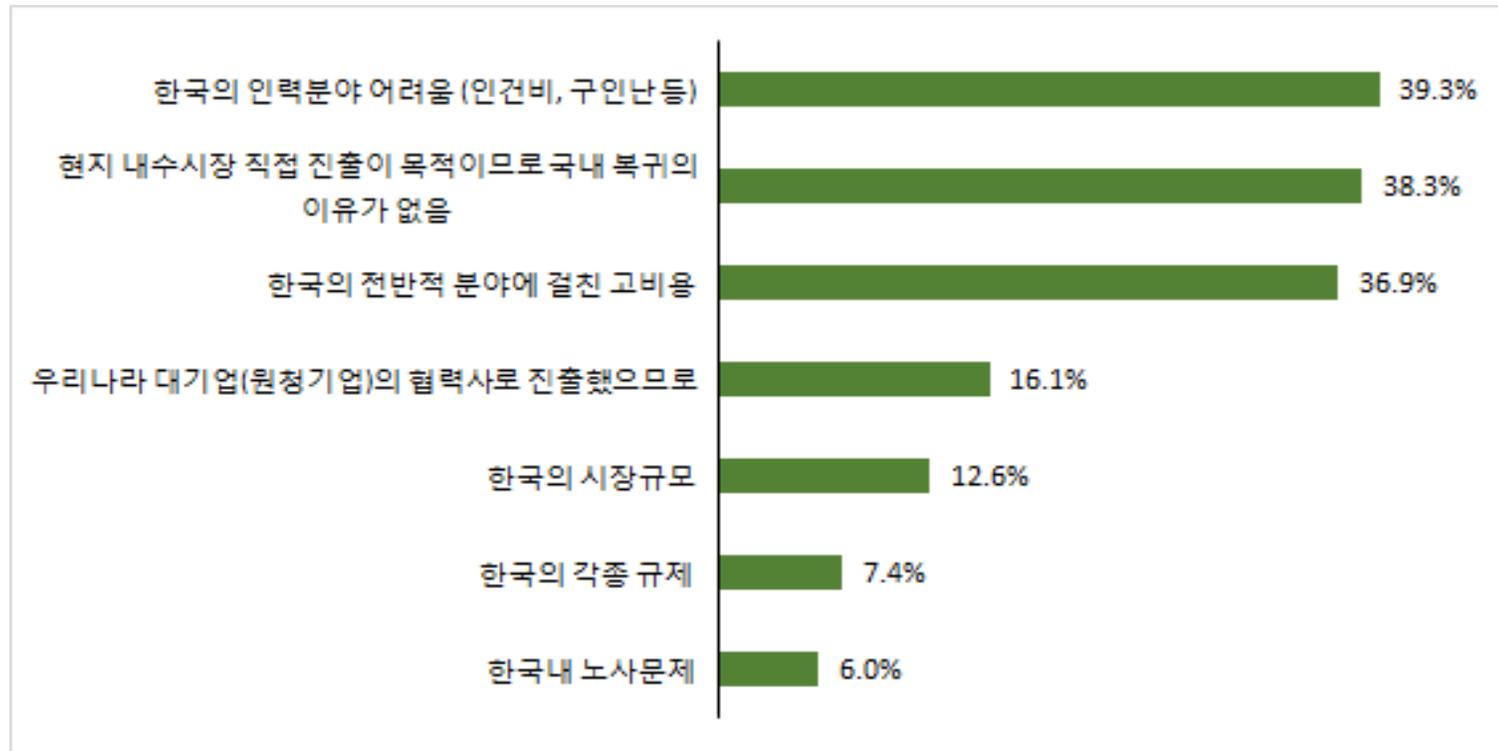
❖ 복귀 대상 기업이 국내복귀를 주저하는 이유

- 복귀 대상 기업이 현지를 이탈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국내로의 복귀를 주저하는 이유는 주로 **인력 및 시장**과 관련된 사항을 꼽았음
 - ✓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는 국내에서의 인력 수급의 어려움 및 인건비와 국내 전반적 분야에 걸친 고비용을 꼽는 대답이 많았음
 - ✓ 일부 기업의 경우 인건비 수준보다는 **원하는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구인난을 국내 복귀의 장애물**로 생각
- 또다른 이유로는 **현지 내수시장 개척이 목표이기 때문에 한국으로의 복귀할 이유가 없음**을 들고 있음
 - ✓ 전술했듯이 이러한 동기로 해외로 진출한 기업을 복귀시키기는 더욱 어려움

4. 국내복귀기업 지원방안

(1) 복귀 대상 기업들의 선호정책

❖ 복귀 기업이 국내복귀를 주저하는 이유 (복수응답)



자료: 중국 및 동남아 진출기업 실태조사 (KOTRA, 2014)

4. 국내복귀기업 지원방안

(1) 복귀 대상 기업들의 선호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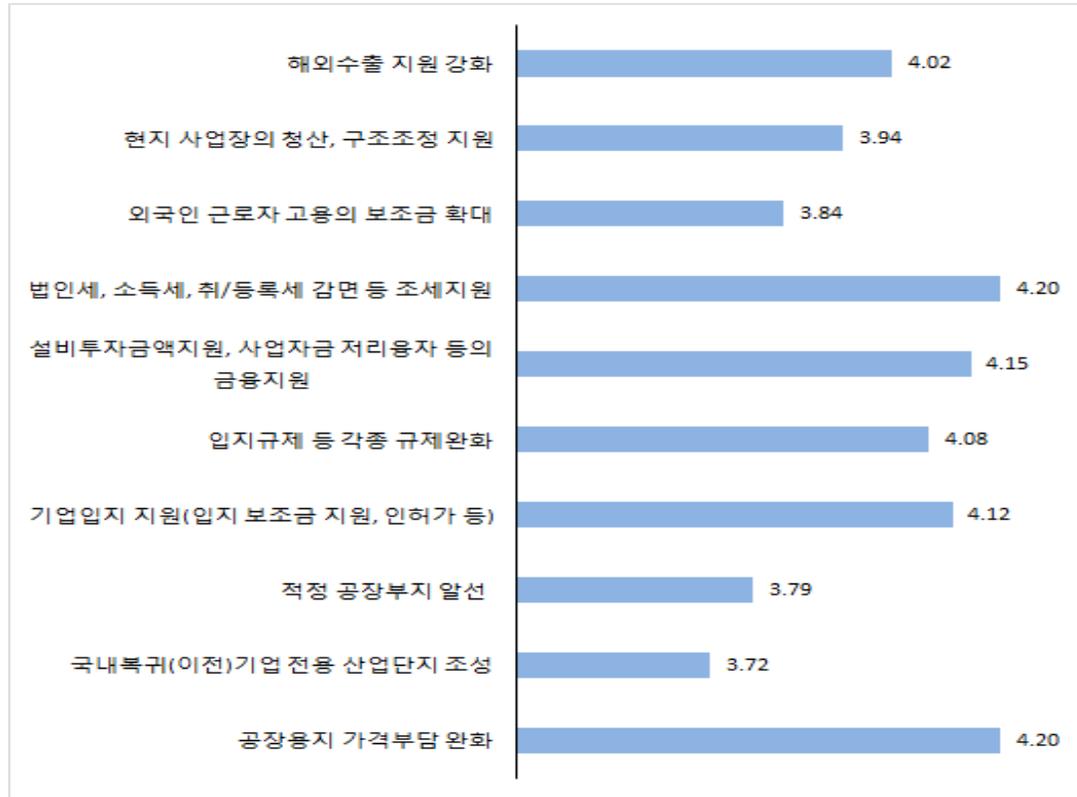
❖ 복귀 기업의 선호정책

- 복귀 대상 기업에 대한 설문 조사결과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은 '공장용지 가격부담 완화', '조세지원', '금융 지원', '입지 보조금 등 기업 입지지원' 등에 선호도를 나타냄
- 상대적으로 '공장부지알선', '전용 산업단지 조성', '외국인 근로자 고용 보조금', '현지 청산 지원' 등은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해외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이 복귀를 할 때 금전적인 요소가 수반되는 지원을 다른 지원보다 더 선호함을 시사

4. 국내복귀기업 지원방안

(1) 복귀 대상 기업들의 선호정책

❖ 복귀 기업의 선호 정책 (5점 만점)



자료: 중국 및 동남아 진출기업 실태조사 (KOTRA, 2014)

4. 국내복귀기업 지원방안

(1) 복귀 대상 기업들의 선호정책

❖ 업종별 선호 정책수단

- **섬유·의류:** 공장용지 가격부담, 완화, 기업입지지원 (입지보조금 지원, 인허가), 입지규제 완화, 설비투자 금액, 사업자금 등 금융지원, 현지 사업장의 구조조정 지원
- **전기·전자:** 공장용지 가격부담, 완화, 기업입지지원 (입지보조금 지원, 인허가), 입지규제 완화, 설비투자 금액, 사업자금 등 금융지원
- **기계·자동차:** 공장용지 가격부담 완화

4. 국내복귀기업 지원방안

(2) 복귀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 단기적 관점에서 시행해야 할 제도적 개선 요소

- ① 복귀기업이 선호하는 개별정책의 강화 및 보안
- ② 기업의 원활한 국내복귀를 위한 세부제도 개선
- ③ 복귀 후의 원활한 인력 공급 지원 및 사후지원 강화 등

4. 국내복귀기업 지원방안

(2) 복귀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① 복귀기업이 선호하는 개별정책의 강화 및 보안

(예) 현지법인의 양도 알선

② 기업의 원활한 국내복귀를 위한 세부제도 개선

(예) 복귀기업 지원 절차 및 기준에 대한 홍보강화

지원 신청 절차의 간소화

지원자격 심사기관의 단일화 등

4. 국내복귀기업 지원방안

(2) 복귀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 장기적 관점에서의 개선요소

- ① 기업 복귀의 산업적 관점에서의 거시적 접근
- ② 각 지자체의 기업 복귀에 특화된 전문 담당자 육성

4. 국내복귀기업 지원방안

(2) 복귀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① 기업 복귀의 산업적 관점에서의 거시적 접근

- 일부 기업들은 세세한 인센티브보다 정부가 해당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을 더 선호한다는 의견을 피력
- 정부가 복귀기업 유치 대상 산업의 육성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쪽이 기업이 국내복귀를 결정하는 데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음

4. 국내복귀기업 지원방안

(2) 복귀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② 각 지자체의 기업 복귀에 특화된 전문 담당자 육성

- 지자체와 관련하여 기업들이 호소하는 문제점 중 하나
- 현재는 복귀기업의 유치 및 관리를 각 지자체의 투자유치 담당이 겸임을 하고 있어서 리쇼어링과 관련된 제도 파악의 미비 등 전문성이 부족하여 국내로 복귀한 기업에의 신속한 지원이 어려움
- 각 지자체는 기업 복귀에 특화된 전문 담당자를 육성하여 장기적으로는 복귀 기업의 유치 및 사후 지원을 담당하도록 해야 함

5. 통상환경 변화와 기업복귀에 미칠 영향

(1) 트럼프 정부의 출범과 통상환경의 변화

- 트럼프는 선거운동기간부터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고 그 결과 NAFTA 재협상 등 기존의 무역협정에 대한 개정을 시도
- 또한 중국에 대해서 강력한 견제정책을 시사
 - 중국에서 완제품을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에게는 타격을 줄 수 있음
- 그러나 중국 내수 시장이나 미국 외의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들에게는 직접적인 타격은 적을 것으로 보임

5. 통상환경 변화와 기업복귀에 미칠 영향

(2) 트럼프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기업들의 미국 투자 확대

-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은 중국에 진출한 기업의 사업장 이전 요인은 될 수 있어도 국내로의 복귀 요인은 되지 않음
 - 기업들에게는 국내 복귀뿐만 아니라 제3국으로의 이전도 선택지에 포함
 - 생산비용을 중시하는 기업들은 베트남·캄보디아·미얀마 등으로, 시장을 중시하는 기업들은 미국으로의 이전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음
- ➔ 트럼프의 대중건제가 본격화될 경우의 기업들의 선택에 주목할 가치가 있음.

5. 통상환경 변화와 기업복귀에 미칠 영향

(3) 트럼프 집권이 미칠 영향과 기회요인

- 트럼프가 선거운동 기간 중에 한-미 FTA에 대해서 비판한 적이 있지만 한-미 FTA에 조치를 취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그에 비해 불공정 무역국 지정을 통한 대중 견제 및 고율관세 부과, 무역구제조치 발동 등은 무역협정 관련 조치보다는 비교적 대내적인 마찰이 적은 편임
 - 따라서 트럼프의 대중 견제 조치와 한-미 FTA에 대한 조치 사이에는 시차가 예상됨
: 트럼프 임기 중에는 강화된 대중견제 속에서 한-미 FTA는 여전히 유효할 가능성이 높음
- ➔ 이러한 점을 활용하여 중국 진출기업 중에서 미국을 주 시장으로 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복귀를 추진하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임**

6. 복귀기업 유치전략 수립을 위해 고려할 요소

(1) 국내복귀지원법의 의의를 축소할 필요는 없음

- ❖ 국내복귀지원법은 정부의 기업복귀 정책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로서 작용 가능
 - 현재까지의 성과도 기업 복귀에 대한 진지한 접근의 결과이며 지원법 제정도 그러한 고민의 일환
 - 겉으로 보이는 외국의 성과를 과대평가하는 것은 금물
 - ❖ 제도 자체가 기업들의 복귀를 방해하는 것은 아님
 - 제도를 없앤다고 해서 지금보다 상황이 나아지거나, 제도가 투자유치 노력에 제약이 되는 것은 아님
 - 현재의 제도가 기업들에게 매력이 없고 지자체 등이 자체적으로 맞춤형 지원을 하기에는 재정적 기반이 부족한 것이 문제
- ➔ 성과가 없다고 법의 존재의의를 축소하는 것보다 현재의 법·제도를 어떻게 개선을 해야 지금까지의 성과에서 더 발전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타당

6. 복귀기업 유치전략 수립을 위해 고려할 요소

(2) 복귀기업 유치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역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아야 함

- ❖ 어느 지역에 한국기업의 진출이 활발한가? → 복귀 기업 유치활동 대상지역 선정
- ❖ 해당 지역에서는 어떤 업종이 주를 이루는가? → 유치하고자 하는 업종이 해당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 ❖ 해당 지역의 한국기업 진출 추세는? → 복귀 기업 유치의 장·단기 전략 수립과 관련
- ❖ 한-중 FTA 등의 영향은? → FTA에 영향을 받는 기업의 형태 및 업종

(3) 현재가 아니라 5~10년 후의 상황을 고려하여 장기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함

- ❖ 진출기업의 이전이 시작된 지역도 있고 아직까지는 기업들의 유입이 유출보다 더 많아 지금 당장보다는 몇 년 후에 기업들의 이전 움직임이 본격화 될 것으로 생각되는 지역이 있음
- ❖ 진출 지역으로부터 받는 세금감면 혜택 및 인센티브 등의 시효가 만료되는 시기를 고려

6. 복귀기업 유치전략 수립을 위해 고려할 요소

(4) 복귀 대상 기업 중에서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음

- ❖ 현재 해외에 나가있는 기업의 상당수는 가치사슬 상에서 저부가가치 기능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음
 - 특히 해당기업이 중소기업의 경우는 저부가가치 기능을 담당할 확률이 높음
 - 기업을 국내로 복귀시켜서 얻을 수 있는 효용을 고려해야 함
 - 저부가가치 기능의 단순 복귀는 기업복귀의 본래 의도를 훼손
 - ❖ 고용의 측면에서도 기업의 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맹목적인 복귀기업 유치는 구인과 구직의 미스매치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
 - 저부가가치 기능이 양질의 일자리를 얼마나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
 - 기업 입장에서도 경쟁이 가능한 수준의 인건비로 원하는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저임금 노동력의 유입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음
- ➔ 복귀하려는 기업의 역량을 고려해야 함

6. 복귀기업 유치전략 수립을 위해 고려할 요소

(5) 정책 효용성 제고를 위해 기업과 지자체, 투자유치 관계자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를 기울여야 함

- ❖ 기업들의 복귀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앵커역할을 할 대기업의 복귀가 중요
 - 업종에 따라서 대기업과의 협력관계 때문에 관련 중소기업까지 현지진출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음
 - 대기업이 복귀하면 관련 중소기업도 따라서 복귀
 - ➔ 대기업의 복귀가 고용, 일자리의 질,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정책의 효과를 더 높임
- ❖ 현지진출기업/국내복귀기업의 고충을 끊임없이 피드백하여 정책 개선에 활용
 - 그러나 기업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며 수용에도 범위와 기준은 있어야 함
 - 단순한 금전적 지원 혹은 부지 임대/매입 관련 혜택과 부동산 시세차익만을 목적으로 국내복귀를 생각하는 기업이 있음
 - 무분별한 지원은 지원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결과만 초래

6. 복귀기업 유치전략 수립을 위해 고려할 요소

(5) 정책 효용성 제고를 위해 기업과 지자체, 투자유치 관계자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를 기울여야 함

- ❖ 복귀기업의 선정에서 지자체에게 재량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미국, 일본 등은 복귀기업 유치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큼
 - 정부는 투자관련 정책 규제 완화 등을 통하여 보조하는 역할
 - 수도권 외의 지자체에 복귀하는 경우 지원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과의 조화도 고려